

공감

공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매거진

VOL. 71
2025 · 2/4

연대의 가치 모두 얼마예요?

시너지

일체감

책임감

자신감

theme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연대의 가치

발행인의 글

함께 지킨 민주주의 연대의 가치

어둡고 차갑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입니다.

비상계엄이 일으킨 한파는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왁자지껄하던 연세로 곳곳에 ‘임대’ 표시가 오래 붙어있는 것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두 어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언제나 작은 불빛과 따스함이 힘을 발휘하는 계절입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이 각자의 응원봉으로 거리를 밝혔습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또 광화문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온기를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품은 채로.

노동조합도 지난 1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광장에 세브노조 깃발을 세웠습니다.

퇴근 후 광장을 찾았다가 세브노조 깃발을 보고 함께 한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현장에서 그 어디에서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구나, 싶어 뭉클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있어서는 안 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서조차 우리는 많이 배우고 성큼 나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했던 ‘민주주의’가 권력자에 의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공기 같던 법치의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감>에서 우리가 함께 지킨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연대(Solidarity)’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폭력의 반대말일지도 모릅니다. 폭력적인 논리를 앞세워 극우세력이 혐오와 갈라치기의 목소리를 높여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역지사지하고 토론하며 갈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모두 같아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며 나아갔습니다. 노동조합의 연대도 그러합니다.

올해는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 6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노동조합 65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창립 65주년을 축하하며,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5,500 조합원이 함께 연대해야 의미 있는 조직이니깐요.

노동조합이 준비한 창립 65주년 프로그램이 하나씩 열리고 진행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드디어 찾아온 봄에 함께 축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더욱 기쁩니다.

1만 교직원의 대표,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공감 노동조합

- | | | |
|---|--|---|
| <p>02 from 노동조합
세브란스 주요 뉴스</p> <p>07 공감툰
김유라 조합원의
단짠단짠 병원라이프</p> <p>08 to 노동조합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나된 시간들</p> | <p>12 세브란스 포커스
65년 차 정기대의원대회
성료!</p> <p>16 알려드리종
통상임금, 숫자에 담긴
마음을 지키기 위해</p> <p>18 우리가 만든 변화
공휴-일요 중복일
휴일근무수당</p> | <p>20 노동 잡학지식
노동절은 왜
휴무일이 됐을까?</p> <p>22 부서탐방
어린이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p> <p>26 일상스타그램
우리들의 봄</p> <p>28 함께 읽어요
정치 무관심이 가져올 위험성</p> |
|---|--|---|



공감 이슈

- 31 인트로**
연대의 가치
모두 얼마예요?
- 32 이슈 깊이 보기**
연대에 대한 잘못된 오해

- 36 이슈 썰전**
노동조합은 왜
연대에 앞장서나?
- 38 이슈 멀리 보기**
연대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연대

부록

- 42 경조사 안내**
조합원 경조사 함께 나눠요
- 44 독자 미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 기념 퀴즈

〈공감〉 2025. 2/4 통권 제71호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발행인 권미경 위원장 발행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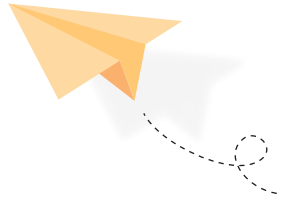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노보지 〈공감〉은 분기마다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공감〉에서는 조합원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나눕니다.

바쁘고 지친 병원에서 갇혀있는 마음의 눈을 잠시 세상으로 돌려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작은 행동을 제안합니다.

Severance Hospital Trade Union Magazine

2025. 02-04

NEWS



대통령 파면 연대와 함께한 122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이 파면됐다. 노동조합은 불법 계엄부터 파면까지 122일간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구속·파면을 외치며 시민들과 함께했다.

지난 3월 8일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이후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단식 농성을 지지 방문하며 연대했으며, 3월 26일 진행한 한국노총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에 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매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한국노총 참여)' 집회에 결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켰다. 한편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공지되면서 안국역 앞에서 '비상행동 24시간 집중행동'으로 4월 2~3일 철야농성이 진행됐다. 노동조합도 권미경 위원장, 김은희 사무처장 등이 결합해 '8:0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4월 4일, 윤석열 파면의 현장에도 함께 해 기쁨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한국노총 투쟁승리 보고대회'에서 권미경 위원장은 "모두 동지들 덕분"이라며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기쁨을 나눴다.



신입직원을 위한 노동 교육

1월 15일, ABMRC 유일한홀에서 신입직원 교육이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의 강의와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마련해 신입직원 교육에서 노동 교육을 진행했다.

신입직원 교육에서 확보한 노동 교육 시간은 노동조합이 요구해 단체협약에 수록한 것으로, 공식적인 노동 교육이 없다시피한 현실에서 신입직원들과 노동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3월 4일 신입직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신규 약사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갖기도 했다.



2025년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1월 17일, 노동조합은 양평 소노휴에서 2025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2025년 사업 계획에 관한 건, ▲임금(통상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건,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활동 보고에 관한 건,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 고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퇴직조합원 선물을 전별금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 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와 조작 등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새해맞이 점심 선전전 및 현장 라운딩

노동조합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점심 선전전과 현장 라운딩을 진행했다. 1월 27일 종합관 식당 등 직원식당 앞에서 오란다를 나누며 새해의 인사를 전했다. 선전전을 마친 후에는 병동 등 현장 라운딩으로 조합원을 만나 간식을 전하며 명절 인사를 나눴다.



활강의 자유를 만끽한 조합원 스키캠프

2월 13일, 용평 모나파크로 2025 세브노조 조합원 스키캠프를 조합원 65명과 함께 다녀왔다. 곳은 낯설었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슬로프를 가르며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노동조합에 엄지 척을 보내주었다. 상경하기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2025년에도 조합원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하반기 퇴임조합원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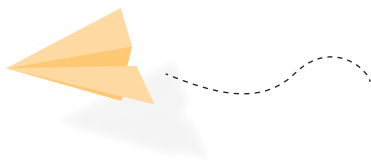
2월 20일, 2024년 하반기 일반직 퇴임식이 열렸다. 노동조합은 퇴임식에 앞서 복성각에서 퇴임조합원 간담회를 갖고 선배님들의 퇴임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대 중반에 퇴직할 뻔했는데, 노동조합이 이렇게 정년까지 다닐 수 있게 도와줬다”라며 말문을 트 한 선배님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퇴임식에 참석한 권미경 위원장은 송별사를 통해 “선배님들이 그러하셨듯 노동조합 역시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년 교섭위원회 첫 회의 진행

3월 4일, 2025년 교섭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노동조합은 매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위원회를 소집하고, 의료원과의 교섭을 준비한다. 교섭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이후 3월 11일~16일, 6일 동안 ‘2025 임금 및 단체교섭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65년 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간부·대의원에게 보고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창립 65주년을 기념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원 65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선물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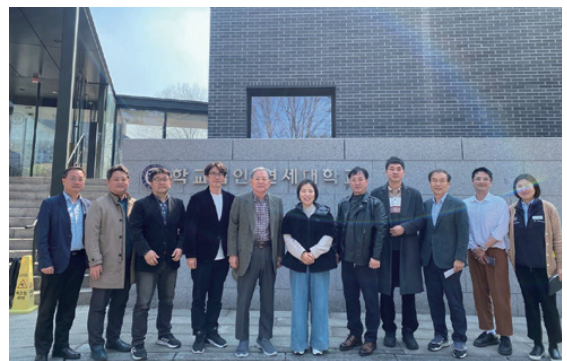
2024년 4/4분기 노사협의회 진행

3월 11일,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2024년 4/4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다. 노사협의회는 의료원의 경영현황 보고에 이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의료원 측은 법정수당 외에 명확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니 실무협의를 거쳐 소급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경총·한국노총의 통상임금 지침을 검토하며 의료원과의 실무협의를 준비했다. 이후 3월 19일,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실무 TFT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실무협약이 진행되기 전후로 각종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조작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응하고자 현장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했다.



연세노조협의회, 이사장-총장 간담회 진행

4월 1일과 9일, 연세노조협의회는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허동수 이사장과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과의 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연세노조협의회는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에 속한 총 9개 노동조합(연세대학교노조, 연세대미래캠퍼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원주 연세의료원지부, 연세유유노조 등)이 모인 협의체로, 권미경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각 노동조합의 현안과 재단 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한국노총 평화학교 동참

4월 1일~3일, 2박 3일간 한국노총 평화학교가 제주에서 진행됐다. 공공연대노련과 함께 참여한 한국노총 평화학교에서는 4.3항쟁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 공부하고, 4.3항쟁 유적지를 직접 돌아보았으며, 77주년 4.3항쟁 희생자 추념식에도 참석해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4월 10일, 제주의 4.3항쟁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의미가 깊다.



마크라메 원데이 클래스 개최

4월 2일,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나만의 마크라메 도어벨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다. 노동조합은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조합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그 일환으로 연간 4차례의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 <초혼> 조합원 단체 관람

노동조합은 4월 9일 오후 6시, 신촌 아트레온CGV에서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영화 <초혼>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특별 상영회를 진행했다. 상영회에는 조정래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무대인사를 전해 감동을 더했다. 영화 <초혼>은 민중가요 노래패 들꽃소리가 파업 현장에 연대하면서 벌어지는 과정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세브노조는 매달 급여일에 노동조합 활동 소식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모든 활동 소식을 담지 못한 나머지 소식은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세브노조 뉴스레터 S-Picker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유라 조합원의 단짠단짠 병원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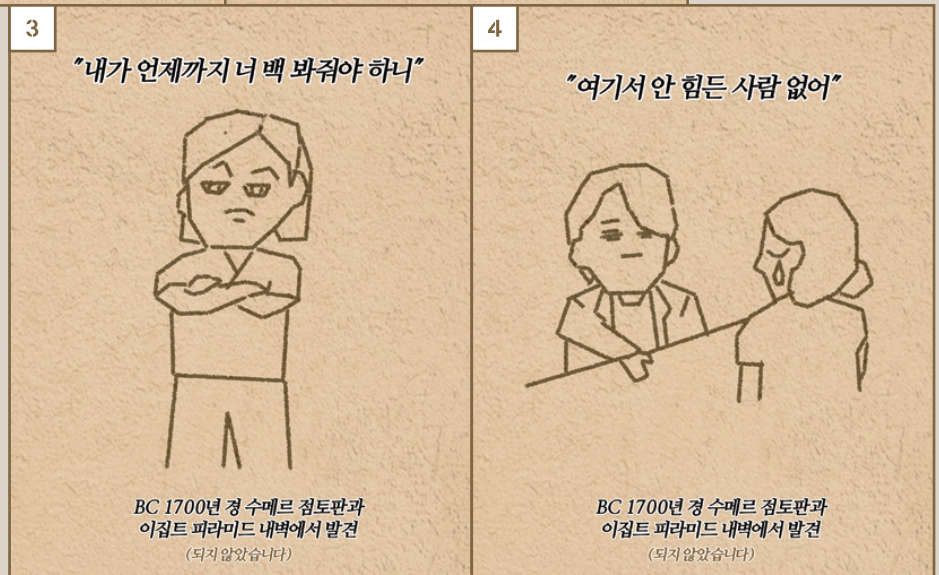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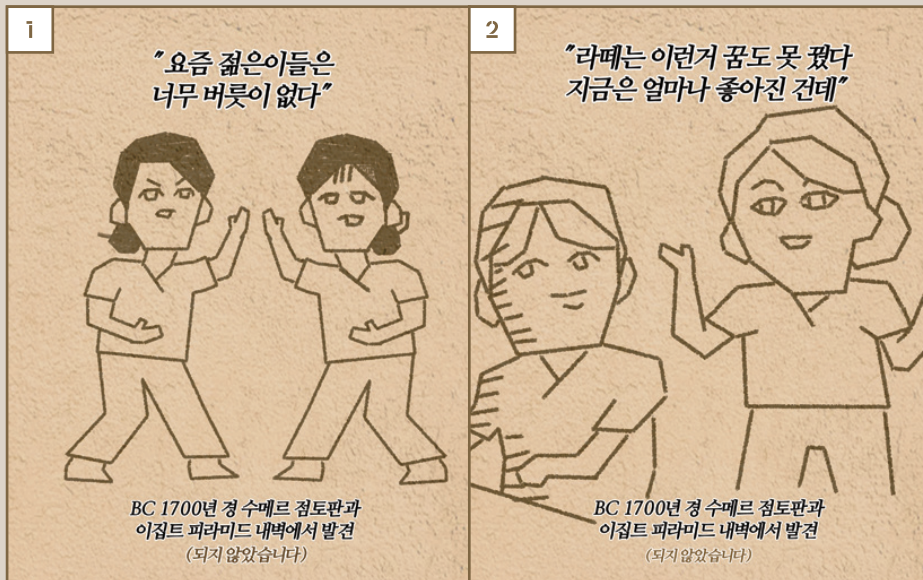
혹시 고대 이집트 병원에서부터 구전되어온 말인가요?

김유라 조합원(@noteatingale)은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재능으로 바쁜 병원 생활을 그려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 삼고초려 끝에 노동조합 매거진 <공감>에 게재합니다.
김유라 조합원의 '공감툰'을 통해 여러분과 병원 생활의 공감대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다가도 '선을 넘을 때면' 언제든 노동조합으로 찾아와주세요!

@noteating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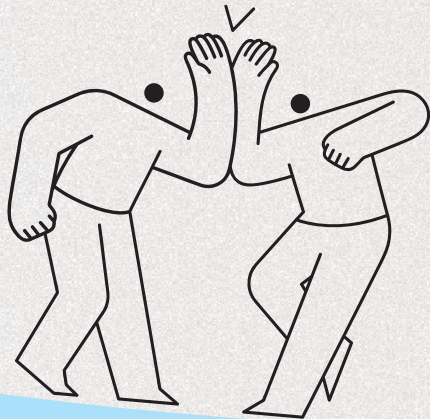
공감툰
더 보러 가기



파면 집회부터 문화 행사까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나된 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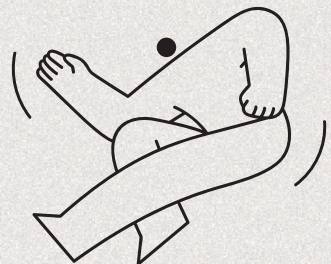
외부 갈등이 커질수록 내부 결속력이 높아진다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된 지난 시간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전임들과 함께 피켓을 높이 든 조합원부터
노동조합이 마련한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한 조합원까지.
뜻을 함께해 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세브노조를 하나로 더 응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촉구 집회

재활병원 작업치료 2파트 이혜연 조합원

지난해 매서운 겨울바람과 함께 시작된 내란수와 윤석열 탄핵집회는
봄을 부르는 꽃샘추위와 함께 '파면'이란 단어로 끝이 났습니다.
이 당연한 결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쳤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지요.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고,
연대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 순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작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탄핵 집회에 함께 했던 순간들이 가슴 뭉클하고 뜨거웠습니다.
세브란스노동조합 위원장님, 전임, 간부, 대의원, 조합원 여러분!
추운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는 마음 이어가겠습니다.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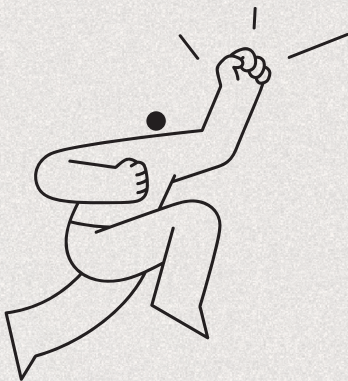




나만의 마크라메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세브란스병원 중앙명균파트 김지혜 조합원

실 한 가닥씩 매듭을 만들어 원하는 형태를
 갖춰나가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 부듯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만드는 작업 같았지만 만들고 나니
 그 안에 모인 조합원들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오로지 실의 매듭 모양을 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완성된 도어벨을 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처음 보는 낯선 조합원들과도
 접점이 생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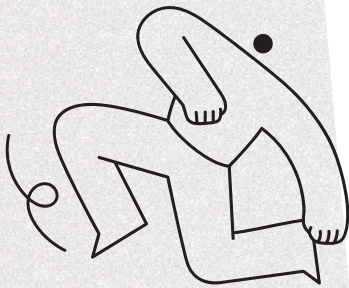




영화 <초혼 : 다시 부르는 노래> 단체 관람

사무처 설비관리파트 김평주 조합원

1980~90년대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민중가요를 매개로 영상화한 작품이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최근 노동조합과 함께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또 마지막에 다 함께 <나의 친구야>를 부르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그리운 내 친구들 어디로 갔나 /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고 있나 / 차가운 새벽 들판에 서 있나 / 어딜 가야 너를 만나라 / 어딜 가야 너를 만나라 / 보고픈 보고픈 내 친구야”

분열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세브란스 공동체로

65년 차 정기대의원대회 성료!

노동조합은 3월 28일(금) 강남세브란스 대강당에서 열린 65년 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간부·대의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매년 3월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회로 노동조합 사업 및 예·결산을 모두 보고하고 의결하는 자리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6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2025년 3월 28일(금)

장소 강남세브란스 대강당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승인의 건



창립 65주년 기념사업 의결

바쁜 일과 중에도 간부·대의원 1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해 65년 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빛냈다. 무대에 오른 권미정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세브란스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갈등을 부추겨 이득을 보는 양상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립 65주년을 함께 축하하도록 혼란을 넘어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올해는 노동조합 창립 65주년 맞이해 조합원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간부·대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간부·대의원의 역량을 높이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동과 ESG>에 관한 강의와 전태일 의료센터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노동과 ESG, 모두 지속가능한 사회로...

신촌과 용인에서 출발한 버스가 강남세브란스에 도착하고 간부·대의원이 대강당에 모였다. 오전에는 간부·대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로 채워졌다. 첫 시간은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ESG>를 주제로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유훈 박사의 강의. 먼저 ESG라는 개념부터 알아봤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인 ESG는 주로 경영과 투자의 관점에서 활용됐지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이며, 노동조합과도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Social)의 요소에는 노동환경과



현장의 안전 문제,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 노동조합이 고민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 역시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요소이므로 ESG가 우리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란 점을 확인했다. 유훈 박사는 “지지를 얻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미래, 또 개인으로는 책임 있는 소비 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의를 마쳤다.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ESG 경영’에 대한 제안을 담은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전태일’이 필요하다

이어진 시간은 현재 추진 중인 ‘전태일의료센터’를 소개하고, 함께 연대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이 녹색병원 소개에서부터 전태일 의료센터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서울시 면목동에 위치한 녹색병원은 노동자·시민이 만든 병원으로, 1988년 원진레이온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이라는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진레이온 피해자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병원과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그곳이 바로 녹색병원이다. 녹색병원은 설립 이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미화, 조리사 등 원내 모든 직종이 정규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태일의료센터는 녹색병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해 운영하고, 명실상부 노동자 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공익형 민간 의료기관으로, 탄핵 국면을 통과하며 더 많은 시민이

연대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다. 임상혁 원장은 “아파서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의료기관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전태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도 건립기금을 기부했으며, 권미경 위원장이 건립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 존중과 신뢰로 한 걸음 더!

점심식사 후 65년 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감사 보고의 건,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및

운영위원 승인의 건,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승인의

건,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설문조사 보고의 건,

▲통상임금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의결했다.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 보고에서는 노동조합

재정에서부터 사업까지 2024년의 노동조합 활동을 상세히 보고한 후에 의결했다. 노동조합의

회계는 고용노동부 회계 공시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창립 65주년을 맞은 2025년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소통을 넓히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대의원과 공식 채널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교섭대표노조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행태에

법적 조치 등 제재를 가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마지막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설문조사 결과를 간부·대의원에게 보고하고 올해 교섭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위한 TFT

경과보고 역시 진행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중요한 기점이다.

노동조합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다시금 점검하고 2025년 사업을 하나씩

집행할 계획이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 멈추지 않은 여정 통상임금, 숫자에 담긴 마음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없애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노동조합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판례가 단순히 법리의 정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속 숫자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묵묵히
감내해온 현장의 무게가 반영된 것입니다.

글 이종민 세브노조 노동안전국장

우리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카테고리를 재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급여체계 속 항목을
들여다보며 어떤 항목이 소정근로의
정당한 대가인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세브란스는 하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 신촌, 강남 그리고
용인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조합원이 있는
곳에 우리의 책임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용인의 급여체계는 신촌·강남과
조금 다릅니다. 용인세브란스 급여제의
'능력개발급' 항목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당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세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기 위한 싸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사업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5년 2월 6일, 뒤늦게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명확한 해결책보다 절충안을 담고 있었고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임금체계 개편 등 사측에 유리한
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짜 해답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통상임금), '×'(명백히 제외), '△'(논란 가능)으로
항목들을 구분하고, 판례와 근로계약서, 수당의 지급 사유와
그 역사까지 살살이 찾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등
전문가와 협의하고 의료원의 해석과 대비되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썰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정당한 근거를 찾았습니다.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동조합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지난한 작업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차갑지만 양보 없는 치열한 협상

2025년 3월 11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드디어 '통상임금 실무 TFT' 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3월 24일, 3월 27일, 4월 9일 4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마침내 현실 가능한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고민한 결과이자 의미 있는 성취였습니다.

✓ 새롭게 통상임금에 산입된 항목들

통합수당

하계 휴가비

자기 계발비

신규여제 입사자의
근속보존수당
2009년 11월 이후 입사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명절상여수당

용인세브란스병원의
능력개발급

말뿐인 이들과의 차이, 현장이 안다

통상임금 실무협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말만 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나온 후 글 몇 줄을 적어 붙여놓고, 마치 모든 것을 해낸 듯 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절박함을 빌미로 불안감만 풍겼을 뿐 실제로 행동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점심시간마다 식당 앞에서 조합원께 피켓을 들고 설명할 때, 퇴근길 의료원 로비에서 우리의 권리를 외칠 때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주장 속에 '용인세브란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이거나, 무책임이거나, 혹은 무관심입니다. 용인을 외면한 채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조합원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현장을 지켰고, 누가 글만 썼는지를. 투쟁은 말이 아니라, '땀과 시간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드디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조합원들의 땀과 시간이 다시금 '통상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보상받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과정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5,500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끝까지 조합원 곁을 지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합니다. 우리는 항상 조합원의 편입니다. 때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합니다. 이 마음 멈추지 않고 조합원과 함께 걸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늘 함께 합시다!

* 2024년 12월,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일하게 된 이종민 노동안전국장이 <알리드리지윤>의 바통을 이어받아 <알리드리종>을 연재합니다. 새로운 시선의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수당이 통장으로! 공휴-일요 중복일 휴일근무수당

일요일에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대학병원 특성상 교대근무자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이어도 대체 유급휴일이나 수당 지급을 예외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요일이 공휴일이어도 평일 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정된 법률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명시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생기는 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근직 노동자가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주휴일이 평일인 교대근무자가 일요일이자 공휴일인 날에 일하면 평일 근무로 인정될까? 휴일 근무로 인정될까? 세브노조는 개정된 법률에서 일요일이 공휴일로 명시된 만큼 주휴일과 상관 없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 끈질지게 요구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냈다. 1년 넘게 투쟁한 결과,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교대근무자의 공휴일과 일요일 중복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월급에 자동 반영되는 것은 물론 지난해 근무한 3일의 휴일근무수당까지 소급 적용됐다.

* 주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날.

단체협약 제45조(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2. 주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유급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하략)

단체협약에 따른
2024년의
공휴일 겸 일요일



타임라인으로 보는 1년의 쟁취 과정



세계노동절 135주년 기념 노동절은 왜 휴무일이 됐을까?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휴무일로 인식되는 5월 1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가 투쟁하다 희생된 날이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과거 노동자들의 피로
오늘날 하루 8시간제가 도입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계를 멈춘 노동자들의 집단 투쟁

3·1절, 광복절과 같이 국가에서 법률로서 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노동절도 마찬가지다.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미국노동총동맹 주도하에 노동자 34만 명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19만 명이 동맹파업을 시작한 1886년의 5월 1일(Mayday: 메이데이)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당시 공장에서 파업 농성 중이던 노동자 4명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분노한 대규모 노동자들이 시카고 헤이마켓광장에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 폭탄이 폭발하고 경찰이 폭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고, 교수형을 당했다.

그 여파로 과거에 해산됐던 노동자계급 국제조직인 국제노동자협회가 다시 결성되면서 이날을 기억하고자 1890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조선노동연맹회 노동자 2,000여 명이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며 노동절을 기념했다. 그러다가 1958년에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의 결성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변경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로는 1994년부터 5월 1일에 기념하고 있다.

노동절이 없는 노동자도 있다

모든 노동자가 일을 하지만, 노동절에 휴무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만 노동절 휴무를 보장한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따르기 때문이며, 정해진 임금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도급계약으로 이뤄지는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돌봄 도우미,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절 휴무 적용 기관

학교, 국공립·병설 유치원	정상 근무(재량 휴업)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재량 휴무
병원	재량 휴무
은행	휴무
관공서	정상 근무
우체국	정상 근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	휴무

병원인 세브란스가 노동절에 유급휴무인 이유

병원에도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365일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업종의 특성상 병원은 노동절 휴무 여부를 병원장의 재량으로 채택한다.

일찍이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당시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은 연세의료원과의 단체협약 45조를 통해 유급휴일 제1항에 ‘근로자의 날’을 규정했고, 이에 노동자 개개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무하도록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45조(유급휴일)

1.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3. 개교기념일(5월 둘째 주 토요일)
4. 의료원에 최초 설립한 노동조합의 설립일(7월 21일)
5. 정부 또는 의료원이 정한 임시 공휴일



어린이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 병원에 오기 힘든 어린이 환자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합원들이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 재택의료팀'이라고 래핑된 차량을 주차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이 동그래진다.
그리고는 어르신 서비스도 있냐, 어떤 환자가 신청할 수 있냐, 어디까지 방문 가능하냐 질문이 쏟아진다.



(왼쪽부터) 김은영 조합원, 공명선 조합원, 서현진 조합원, 권승연 교수

어린이병원 4층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이 생긴 건 3년 남짓.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우리 병원이 참여하면서 2022년 6월 23일에 개소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재택의료는 입원치료가 끝난 후 가정으로 돌아간 환자 중에 외래진료를 보러 오기 힘든 중증소아가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사, 간호사, 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자가호흡이 어려운 중증소아가 병원에 한번 오려면 가정에서 쓰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도흡인기와 같은 의료장비를 챙겨 침대째 옮겨야 한다. 병원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증소아와 보호자에게 무척 버거운 일이기에 의료진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하고 치료한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권승연 교수와 간호사 김은영·서현진·공명선 조합원, 재활의학과 홍준택 교수와 물리치료사 박태양 조합원, 작업치료사 이기열 조합원 이렇게 7명이 한 팀이다. 시범사업이라 사무공간이 없어 비좁은 회의실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지만, 조합원들 모두 재택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원해서 팀에 합류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 서비스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온 권승연 교수는 재택의료의 존재 이유로 환아와 보호자의 안정감을 꼽았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아이들은 가족, 친구들과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고, 보호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절망감과 우울감을 느껴요. 집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또 퇴원 후에도 의료진이 방문해 아이를 정기적으로 진료한다는 것이 보호자에게도 안정감을 주고요.”





조합원들은 중증소아가 한 달에 한 번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기 방문하고 있다. 그 덕분에 공명선 조합원은 정기 방문 중 위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하루는 도착해서 아이를 보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측정기로 모니터링해 보니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았어요. 보호자인 아버지께서 아이의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119로 전화해 응급실에서 처치 받게 해주었죠. 그날이 정기 방문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어떤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되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재택의료팀의 정기적인 방문 관리는 가정에서 중증소아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큰 의지가 된다. 특히 보행이 자유롭지 않은 환아가 집에서 받는 물리·작업치료는 더 특별한 경험이다. 조합원들이 찾아가 1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니 만족도가 높다.



보호자의 돌봄 역량을 높이는 역할

조합원들은 하루에 4군데씩 각자 또는 담당 교수와 함께 서울, 인천, 김포, 일산, 파주, 시흥, 하남 등을 다니며 방문간호 혹은 방문재활치료를 한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조합원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보호자의 돌봄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 김은영 조합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소아인 만큼 보호자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퇴원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의료장비 사용법이나 관리법 등을 알려드려도 병원에서 쓰는 장비와 가정용 장비가 달라 헤매고 불안해하세요. 저희가 집에 찾아가 가정용 의료장비로 교육해드리면 그제서야 보호자도 자신감을 찾고 안심하세요. 물어볼 곳이 있으니까요.” 서현진 조합원 역시 재택의료에서 보호자 역할이 큰 만큼 라포를 강조했다.

“가정방문하면 가족의 사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 저도 환자·보호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라포도



훨씬 잘 형성돼요. 보호자가 마음을 열어야 저희도 더 맞춤형으로 가르쳐드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혈액검사와 소변줄 교체하고 소독하는 등 1시간 걸렸던 일이 어느새 보호자와 손발이 척척 맞아 30분 만에 끝나면 보람도 느껴요.”

현재 팀에서 관리 중인 환아는 100여 명이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90명은 조합원들이 직접 방문하며 지속 관리하고, 원거리에 거주해 방문이 힘든 10명은 전화 상담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30여 명의 중증소아가 순서를 기다린다. 환아 맘카페에서는 세브란스의 재택의료 확대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댓글이 줄을 잇는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은 오늘도 기다리는 환자·보호자를 위해 도로를 달린다.

재택의료팀 선생님들께

환해동안 우리 아이들위해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건강하고 편안한 성탄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12. 23
유서진 씬.



항상 사랑과 정심으로
아이들은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의 '부서탐방'에서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메일 severancetu@yuhs.ac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우리들의 봄

이처럼 길고 어두운 겨울이 있었을까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을 통과해 어느덧 진짜 ‘봄’이 왔습니다.

광장에서, 현장에서 또 사랑하는 이들 속에서 맞은 우리의 봄을 나눕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주세요!



세브노조 카카오톡



...

세브란스 171병동 최정애 조합원

아침에 출근해 보니, 탈의실에 봄이 왔네요~^^
누군가의 배려가 다가오는 봄을 모두에게 선물하듯!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일상의 행복입니다.



...

세브란스 마취회복1파트 황명희 조합원

우리 아기는 어디 있나?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유채꽃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꽃과 함께 봄을♥!

※ 일상스타그램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창립 65주년을 맞아 시원한 음료 한 잔 하실 수 있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남세브란스 85병동 김지원 조합원

따뜻한 봄바람 따라 쌍둥이 아이들과 벚꽃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두 아이가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일상의 피로가 사르르 녹더라고요.
조합원 여러분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의
여유와 봄의 따스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노동조합 전임 백예림 조합원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광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은 꼭
조합원과 나눠야지 싶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늘 피로에 '떨어' 있는 전임자들이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건 처음 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웅인세브란스 의료장비파트 정준영 조합원

친구들과 경주와 부산으로 런-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보문단지와
파란 하늘 아래 탁 트인 광안대교 위를
달려보니 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정치 무관심이 가져올 위험성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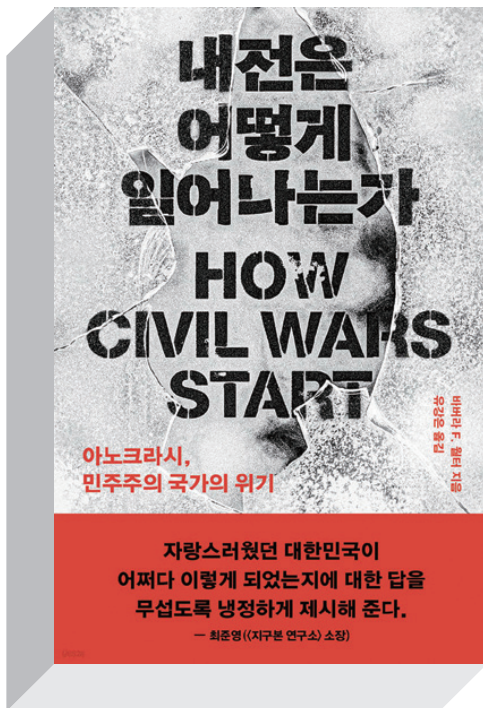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혐오하며 등돌렸던 대가로 우리 사회는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간헐적 테러와 폭력, 소셜 미디어로 가속화되는 갈등

바버라 F. 월터 지음 | 열린책들 출판



최근 내란 세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내전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됐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 아노크라시로 변해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가들조차 더는 내란에서 안전하지 않다. ‘파벌화’와 ‘극단주의’로 양극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내전이다. 저자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내전의 징조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오늘날의 내전이 이전과는 어떤 다른 양상을 띄는지, 그로 인해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말해준다.

이 책을 신청합니다 ✎

강강희 조합원 용인세브란스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

급변하는 시대, SNS로 소통하는 우리 내 속사정과 갈등의 원인을 이 책을 통해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지음 | 어크로스 출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점거 폭동처럼 2021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학자인 두 저자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 주류 정치인들과 동맹을 맺고 극단적으로 행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꼬집는다. 또 두 저자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헝가리,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극단적 사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어떻게 지배하게 되는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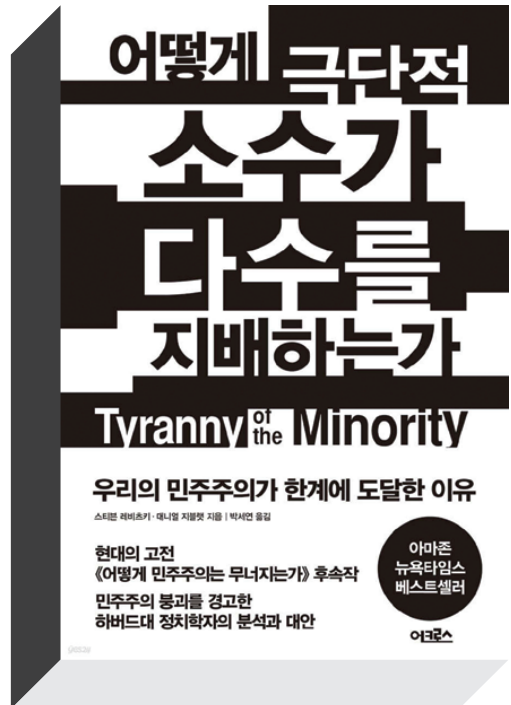
이 책을 신청합니다

정윤희 조합원 세브란스 간호지원파트

소수 엘리트나 권력층이 다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조직 내 권력구조나 리더십에 대해서도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김지원 조합원 강남세브란스 85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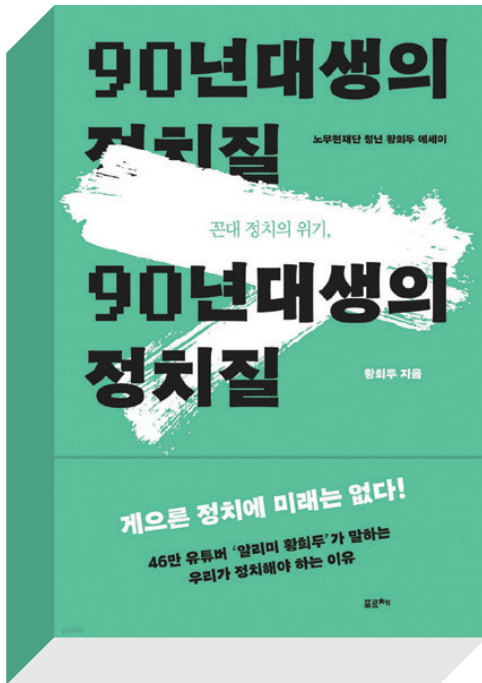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극우주의로 인해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소수의 극단적 세력이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싶습니다.



꼰대 정치의 위기, 90년대생의 정치질

게으른 정치에 미래는 없다

황희두 지음 | 포르체 출판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층이 늘어났다. 하지만 정치혐오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치판을 움직이는 정당인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어서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92년생인 저자는 정치 저관여층인 90년대생들이 언론이나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아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들도 읽기에 어렵지 않다.

이 책을 신청합니다

안유진 조합원 용인세브란스 신생아중환자파트

지금까지 정치에 큰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부터 파면 선고까지 겪고 보니 정치라는 것이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게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90년대생의 관점으로 본 정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요

노동조합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선정 도서는 노동조합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하며, 뉴스레터를 통해 도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처 도서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조합문고에서도 대여 가능하니, 꼭 함께 읽어요!

[안내] 당첨자 발표 후 **2개월 내** 찾아가지 않은 도서는 조합문고로 이관됩니다.

연대의 가치 모두 얼마예요?



돈으로 응원봉을 살 수 있지만, 그 응원봉을 들고

눈비 맞으면서 밤 새워 연대하는 의지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남태령으로 그렇게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들어낸 가치는 얼마일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친위쿠데타를 진압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의 가치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바라고 한 연대가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가 없이 모인 자발적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연대의 힘 연대에 대한 잘못된 오해

공동체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을 통해 안정을 느끼려고 한다.
이는 생존 본능이자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참여 방식이다.
뜻이 맞는 이들과 조직을 구성하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러운 권리다.

1





2 3

시민 연대가 바꾼 대한민국 역사

과거 우리가 일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군 연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투사들의 연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사회적 연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이, 또 집단과 집단이 연대하는 행위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왜일까? 특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학생, 농민, 상인, 노동자, 지식인, 종교인 등 시민들이 연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3·1운동, 4·19혁명, 6월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모두 시민 연대를 통해 얻은 역사의 변곡점들이다.

시민 연대가 이끈 여러 번의 항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독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었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다시 탄핵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것만 보면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024년에 느닷없이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빛의 혁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국민 전체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허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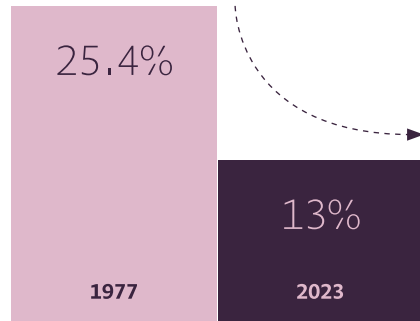
- 1 세브노조도 함께 연대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집회
- 2 이승만 대통령 독재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1960년 4월 규탄 집회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 3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는 제주의 4.19 학생 시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취약한 기업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 연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민주주의는 노사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다. 국민 상당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들의 연대인 노동조합 조직률(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임금노동자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인데,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77년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25.4%였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연대가 약해졌는지 알 수 있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87%의 노동자들은 보호망도 없이 각개전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보통 50%를 넘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렇게 낮은 데는 노동자 연대를 불편하게 여겨온 역사가 있다. 군사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독재의 정당성으로 '경제 발전'을 내세웠다. 부국강병을 앞세워 친기업 정책을 취했고, 노동 착취를 당연한 희생으로 바라봤다. 전태일 열사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 소위 빨갱이로 선동하고 탄압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정책 위주로 펼쳐왔다.

노동조합
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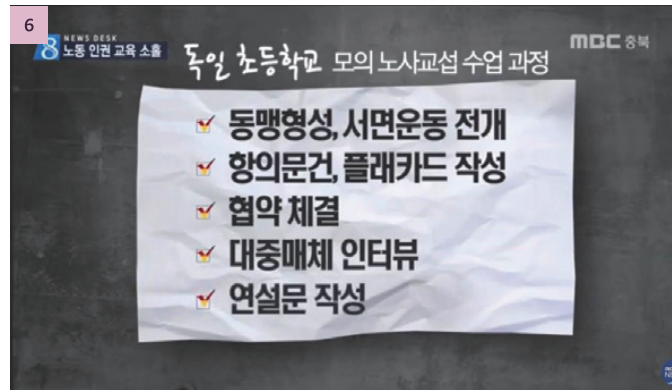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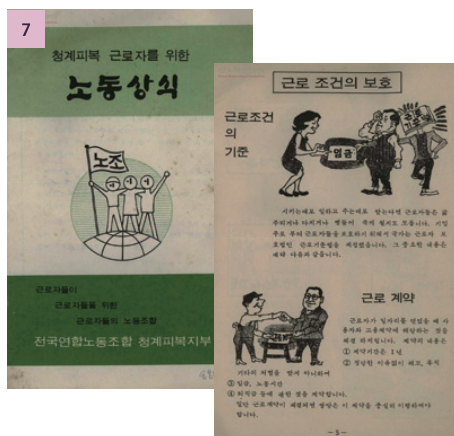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프레임화해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파업의 원인이나 해결책보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만 집중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나라 상위권에 늘 우리나라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 연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을, 그 노동조합이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노동 교육을 통해 배우는 성숙한 연대

뜻이 맞는 이들끼리 서로 연대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여겨지지 않으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길러내는 노동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와 스펙 쌓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노동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진다. 보통 노동 교육이라는 것도 성인이 되어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처음 받게 되는데, 상시 인력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그나마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지한 노동자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교육부에서도 올해 3월부터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고, 사회 등 관련 교과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으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 교육은 사회 과목의 일부 단원이 전부이며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한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노동인권강사 방문 교육을 해주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 4 최저임금 차별 철폐 집회 (출처: 한국노총)
- 5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출처: 한국노총)
- 6 독일 노사교섭 모의 뉴스 (출처: MBC충북 유튜브)
- 7 70년대 노동 상식 책자 (출처: 전태일재단)

우리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학교에서 필수교육으로 정치 및 노동 교육을 한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노사교섭을 경험하는 수업을 한다. 학생들이 노동조합 간부와 경영자로 역할을 나눠 임금 협상을 체결하고, 노동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체험 학습을 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동자 권리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배우다 보니 만 14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6세가 되면 지방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프랑스의 경우, 중학교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해 배우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사회 교과서의 내용 3분의 1이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이 차지한다. 우리는 기업 내에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조직을 결성한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가 요구한 것이 관철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결성된 노동조합이 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면 왜 참여하느냐고 욕을 먹기 일쑤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연대를, 취약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장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왜 연대에 앞장서나?

노동조합이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지지하며 연대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게 느끼는 조합원도 있다. 연대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두 목소리를 통해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

아영

나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 노동자들이 뚝뚝 뭉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지위나 임금 수준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연대하려는 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해. 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잖아.

아영 찬성



진주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당원 활동을 하면 되지 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하냐고. 조합원 중에는 대통령 지지자도 분명 있을 테고. 모두의 생각이다 같진 않을 거잖아?

진주

사내 노동조합이야 임단협을 위해 필요하니 직원들끼리 연대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 집회처럼 왜 정치 문제에 노동조합이 연대하는지 잘 모르겠어. 노동조합은 노동자 연대이지, 정치 연대가 아니잖아.

희섭

노동조합이 정치에 참여해야 우리의 권익을 높일 수 있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병원노동자를 신경 써 주지 않는다고. 산업 규제,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육아휴직 등 법안 발의부터 행정 처리까지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게 모두 정치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 병원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야지.

진주 반대



아영

물론 그중에는 지지자도 있겠지.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우리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중요하다고 봐. 대학생들도,
교사들도, 예술가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아이돌 팬덤도 응원봉 들고
연대하잖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지의
뜻을 밝혀야 계엄을 함부로
선포하는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지.
만약 계엄령이 현실에 반영됐다면
예전처럼 우리는 통제받는 삶을
살았을 거야.

희섭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정치권 찾고 평상시에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정치인이
병원노동자들에게 귀
기울이겠어? 평소에도
참여하면서 지지하는 쪽에
목소리를 내야지.

희섭 찬성



용우

그렇게 다양한 곳과 연대하는
데 쓰이는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조합비가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조합비를 1년간 모으면 꽤 돼.
조합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노동조합에서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단체협약에 주력할 때면
서운할 때도 있고.

희섭

지금 당장 해당되는 게 없는
것이지 우리 모두 단체협약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각종 수당, 공가,
건강검진, 하계휴가비, 경조금
등이 모두 임단협으로 이룬
거잖아. 노동조합이 정치에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용우

그래도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하는 비조합원 보면 굳이
조합비를 내야 하나 싶어. 어차피
비조합원도 임단협은 똑같이
적용되잖아. 누구는 다달이
조합비라도 내는데, 아무것도
보태지 않은 사람까지 누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야?

용우 반대



아영

그렇게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노동조합도 무너지는 거야.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달았잖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 연대에
동참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에도 더
많은 동료들이 연대해서 지켜내야 할
것 같아.

희섭

맞아. 노동조합은 유지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의료계 최초,
최다 인원의 노동조합이잖아.
해마다 성과나 효능감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비상계엄 시국에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더욱
혼란스러웠을 거야. 노동조합이
더 오래 지켜질 수 있도록
무임승차하지 않고 다 같이
연대했으면 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일터로 바꿀 수 있어.

연대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연대

헌법 규정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세브노조는 '비상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1,719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했다.
이 연대가 우리의 일터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민주 사회를 지키는 사회적 연대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벌어졌을 일

계엄령이 해제되지 못했다면, 집권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노동을 탄압해온 현 정권이 노동조합 해산 명령을 내렸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 병원은 계엄군의 감시 속에 강제 복귀한 전공의들과 살얼음판을 걷는 나날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은 계엄령으로 해산되고, 병원에는 계엄군이 배치되며, 집회나 시위와 같은 활동은 물론 모든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세브노조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열망이 컸던 시기, 의료계 최초로 결성된 우리 노동조합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선포된 포고령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 1년 만에 강제 해산됐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 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 해체', '산별 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 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이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뜻을 모아 1963년 재결성해 노동조합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

1961년 5월 21일 군사혁명위원회령 제6호 비상계엄령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즉각적인 해체를 명령한다.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노동조합이 ‘탄핵 연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위나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 표현의 방법 중 하나다. 대규모 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일 때, 그 에너지는 강화된다.

탄핵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각 정당의 지역구별 깃발 다음으로 선봉에 서 있는 것이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의 깃발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노총의 깃발이 앞장서면 산별 노조와 단위 노조가 그 뒤를 따른다. 집회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조합이다. 우스개 소리이지만 노동조합이 집회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평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대통령 탄핵은 우리 병원과 상관 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외면한다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에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탄압해왔을지도 모른다. 반나치 운동가였던 독일의 마르틴 니뭔러가 남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에 잘 나와 있듯 지금 연대하지 않으면 그 탄압의 대상이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뭔러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

일반적으로 연대는 단결을 통해 세력을 얻기 위해 뭉치거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이들이 타협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행위이다 보니 집단 이기주의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적 연대는 이와 분리해야 한다.

일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무려 금 227톤을 모은 대국민 금 모으기 운동이나 2007년 태안 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유출된 다량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흠착포로 기름을 닦아낸 것 등은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룬 사회적 연대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건물주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것 등 역시 사회적 연대의 모습이었다. 2025년 현재는 그 사회적 연대가 장기집권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이 다시는 독재를 꿈꿀 수 없게 막아야 한다는 탄핵 연대로 나타날 뿐이다.

이번 계엄으로 주식·외환시장은 물론 골목경제까지 무너져 '계엄 비용'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탄핵 연대를 통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도 창출했다. 비상계엄을 2시간 30분 만에 해제시킨 국회와 국민의 위기관리능력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게 인정받고 있으며, 결국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연대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과 자신감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조합원 경조사 함께 나눠요

경조비

경조비는 회계규정 28조, 29조에 근거해 지급합니다.
지급 유효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의

02-2228-9401~7

팩스

신촌 02-393-6877

강남 02-2019-2205

용인 031-5189-9922

구분	대상	경조비	신청 서류
			공통 : 통장 사본(직번 기재)
결혼	본인	100,000원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회갑	본인·배우자	5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ESS에서 관계증명서 출력 가능)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본인·배우자	200,000원	①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부모	100,000원	
	자녀		

2025년 2월~4월 경조사

회갑

신촌 15병동 김정화 배우자 / 16병동 이효진 부친 / 81병동 김현아 모친 / 115병동 차지수 모친 / 125병동 박가현 부친, 모친 / 172병동 양아영 부친 /
암)중환자실 오승영 본인 / 암)수술실 최하나 시부 / 암)수술실 조민지 부친 / 암)수술실 조서인 모친 / 암)수술실 신상희 모친 / 암)회복실 안은선 부친, 모친 /
암)외래간호팀 김지영 모친 / 신생아중환자실 김선민 모친 / 소아중환자실 이수근 모친 / 응급간호팀 송혜준 모친 / 응급간호팀 임정현 모친 / 영상의학팀 김유나 시모 /
제중원보건개발원 이수미 배우자 / 임상전담간호파트 김중영 장모 / 간호지원팀 이한나 모친 / 의무기록팀 최문경 배우자 / 안과수술실 고유미 모친 /
마취회복실 하예진 부친 / 보형심사팀 김숙희 배우자 / 신경계중환자실 이지혜 부친, 시모
강남 소화기내과 우선영 부친, 모친 / 진단검사의학팀 강준우 장모 / 진단검사의학팀 성미영 부친 / 의료정보팀 김유민 부친 / 약제팀 류근찬 본인 / NICU 안은비 부친 /
원무팀 한성숙 본인 / 수술실 백지수 모친 / 75병동 이택호 모친 / QPS파트 김선화 부친
용인 의무기록팀 김정은 모친 / 행정교육팀 김동진 부친 / 병리팀 이남이 모친 / 재활의학팀 임학현 모친 / 신생아중환자실 김소원 부친

별세

신촌 15병동 김정화 부친 / 15병동 김인숙 부친 / 15병동 김미영 부친 / 15병동 변미진 시모 / 112병동 김진영 모친 / 125병동 김영선 부친 / 원내생진료실 유미선 시부 /
약무팀 조주희 부친 / 재활2팀 이혜연 모친 / 시설관리팀 이장선 장모 / 암)중환자실 송주희 모친 / 암)중앙명균실 김경선 모친 / 간호지원팀 박현숙 모친 /
수술실 신미선 시모 / 임상전담간호파트 최진범 부친 / 영상의학과 유태종 장인 / 영상의학1팀 조희경 부친 / 내과계중환자실 홍성용 모친 / 외과계중환자실 곽혜경 배우자
강남 83병동 박수련 시모 / 시설팀 차광진 모친 / 74병동 최형란 모친 / 의무기록팀 박영미 시부, 시모
용인 구매물류팀 박인순 시모 / 영상의학팀 김현준 장인 / 영상의학팀 손소영 부친 / 영상의학팀 박주호 장인 / 61병동 한진수 부친

결혼

신촌 행정교육팀 박소정 본인 / 이식지원팀 허지혜 본인 / 16병동 이효진 본인 / 78병동 이가는 본인 / 81병동 김은영 장남 / 116병동 권아연 본인 / 146병동 변유미 본인 /
162병동 신화정 본인 / 181병동 장고는 본인 / 182병동 박인정 본인 / 192병동 김미소 본인 / 응급간호팀 송혜준 본인 / 안전보건팀 지선욱 본인 / 신생아실 박근숙 장남 /
제중원보건개발원 이수미 장남 / 소아중환자실 박민정 본인 / 수술실 고민정 본인 / 내과계중환자실 구지민 본인 / 암)외래간호팀 김지영 본인 / 수술실 전채연 본인 /
심혈관원무팀 김민정 본인 / 심혈관수술실 이연주 본인 / 신경계중환자실 이지혜 본인
강남 내시경장사실 이다솜 본인 / 산부인과 한지원 본인 / 중환자실 이유경 본인 / 중환자실 송은지 본인 / 61병동 구연서 본인 / 73병동 윤주아 본인 / 74병동 김화영 본인 /
병리팀 정은별 본인 / 체코업검진팀 이유라 본인 / 응급실간호팀 김수현 본인 / 정형외과 이혜정 본인 / 정형외과 김성후 본인 / 영상의학팀 김종석 본인
용인 임상전담간호파트 이재희 본인 / 영상의학팀 김동익 본인 / 신생아중환자실 김성연 본인 / 의무기록팀 전수연 본인 / 회복실 이라연 본인 / 회복실 이단비 본인 /
회복실 이지원 본인 / 61병동 김소연 본인 / 101병동 강다윤 본인 / 111병동 이다윤 본인 / 112병동 손진희 본인 / 131병동 김혜진 본인 / 수술실 김민지 본인 /
중환자실 이은숙 장남

사무처장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독자
미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 기념 퀴즈



▲ 세브노조
카카오톡

병원계 최초의 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4.19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에 결성됐습니다.
올해 창립 몇 주년을 맞이했을까요?
정답과 함께 인적사항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카카오톡으로 응모해 주세요.

기간 2025년 5월 31일(토)까지 | 선물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증정

응모자 성함

직번

연락처

소속 ☐ 신촌 ☐ 강남 ☐ 용인

국(팀)

파트(병동)

Quiz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올해 몇 주년일까요?

_____ 주년

지난 호 정답 **연차**

직장인의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차는 녹차? 홍차?
아니죠. 뭐니 뭐니 해도 연차죠.

Congratulations!

지난 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당첨자 발표	
세브란스병원 동위원소파트	김혜린	강남세브란스 외래·응급실간호팀	송주현
세브란스병원 외과계중환자파트	김홍비	강남세브란스 혈청파트	황혜림
세브란스병원 33병동	전송문	강남세브란스 입원간호2팀	이찬란
세브란스병원 100병동	이지은	용인세브란스 응급진료파트	김초희
심장혈관병원 수술파트	김한별	용인세브란스 응급진료파트	이현주
연세암병원 136병동	이수빈	용인세브란스 임상전담간호파트	김도연
강남세브란스 입원간호2팀(41병동)	김미정		

제 135주년 세계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2025. 5. 1. (목) 14시

사전대회 13시 30분

장소

광화문 동심자각

위헌, 위법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함박눈이 펄펄 쌓여도, 봄비가 대지를 적셔도,
전국 곳곳에 산불이 덮쳐도 122일 동안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학생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함께해온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연대를 통해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대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것을.

**노조가 필요한 그대에게 함께, 더 강하게,
조합원 곁에 든든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신촌 📍 광혜관 1층 ☎ 02-2228-9401~7
강남 📍 응급실 입구 맞은편 ☎ 02-2019-2200~2
용인 📍 지하 1층 사회사업팀 옆 ☎ 031-5189-9920~1

홈페이지 <http://severancetu.or.kr>

원내 메일 severancetu@yuhs.ac

인스타그램 @severance_tu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실천행동을 하나씩 실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공감>은 친환경 재생종이와 콩기름으로 인쇄합니다.

온라인
가입원서



세브노조
카카오톡



세브노조
뉴스레터



세브노조
인스타그램

